

# 한우정보 해외소식

제39호

2022.11.17.

## 해외 소식

- 뉴질랜드, ‘마이코플라즈마 보비스’ 감염 소 살처분
- 일본, 농림수산 관련 8,206억엔 추가경정예산안 의결
- 일본 ‘텐트 축사’ 인기, 채광성과 적은 건설비용이 장점

전 국 한 우 협 회

## 뉴질랜드, ‘마이코플라즈마 보비스’ 감염 소 살처분

□ 2022년 9월 뉴질랜드(NZ) 남섬 캔터베리 지역 피드롯 등에서 마이코플라즈마 보비스(Mycoplasma Bovis)<sup>1)</sup> 감염 소가 추가로 확인됨

○ 이에 따라, 뉴질랜드 ‘일차산업부(MPI;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)’는 10월 13일부터, 동 피드롯(feed lot) 주변에 ‘바이오 시큐리티법’에 근거한 감염 관리 구역 통지(CAN:controlled are notice)를 고지하고

- 구역 내로의 소 반입 및 구역 외로의 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함, 또한 CAN 내에 고위험 지역을 설정하고 이 지역 내 소의 살처분을 시작함

○ 덧붙여 같은 달 21일까지 동 지역 내의 2개 농장에서 새로운 감염 소가 확인되고 있지만, 2020년 7월 이후는 해당 구역이 위치하는 캔터베리 지역 이외에서의 감염은 확인되지 않았음(22년 10월말 현재)

### [ 지역별 감염확인 및 청정화 확인 완료 농장수(22년 10월 27일 현재) ]

(단위 : 호)

지역		검역관리 농장	청정화 확인필 농장
북 섬	노스랜드	0	26
	와이카토	0	15
	베이오브플렌티	0	1
	타라나키	0	1
	기즈본	0	5
	혹스베이	0	11
	마너와투왕거누이	0	5
	웰링턴	0	6
남 섬	태즈먼	0	4
	캔터베리	5	139
	웨스턴코스트	0	3
	오타고	0	29
	사우스랜드	0	27
합 계		5	272

자료 : 뉴질랜드 일차산업부(MPI)

1) 소에게 유방염이나 폐렴, 관절염 등을 일으킨다. 전염력이 강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감염 소의 조기 발견과 도태를 통한 만연 방지가 주요 대책

- 일차산업부(MPI)는 업계 단체인 ‘데일리 NZ’ 및 ‘비프&램·뉴질랜드’와 공동으로 2018년 5월부터 마이코플라즈마·보비스 근절 대책을 실시하고 있음
  - 이번 감염 확인 전에는 전국에서 나머지 2개 농장만이 검역관리를 받고 있었으나, 근절 직전에 감염이 확산된 꼴이 됨
  - 일차산업부(MPI)에 따르면 CAN에 의한 제한 구역 내에는 총 14호의 소사육 농장이 있으며, 이 중 고위험 지역 내에는 해당 피드롯 외 8호의 소사육 농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
    - 해당 농장에서는 약 1만 4,000마리의 비육우를 사육하고 있었는데, 소의 살처분을 연말까지(그 외 고위험 지역 내의 소는 2023년 1월 중순까지)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
    - 이후, 2~3개월간 농장 청소·소독을 실시한 후에 소의 재도입을 개시할 계획
- 이런 상황에서 해당 지역에서는 반년 이상 장기적으로 쇠고기와 우유 출하가 중단될 것으로 전망돼 수급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
  - 일차산업부(MPI)는 우유 재고상황과 비육우 및 건유기 젖소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한다는 방침
  - 아울러 가축과 사료, 농기계 이동 등을 통한 감염 확산 경로에 대해 조사를 실시기로 했으며, 가축의 이동 이력 등에 관한 ‘국가가축이력추적제(NAIT)’<sup>2)</sup>의 정확한 기록에 협조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있음

자료 : 일본농축산업진흥기구(22.11.16.)

2) NAIT ; National Animal Identity & Traceability

## 일본, 농림수산 관련 8,206억엔 추가경정예산안 의결

- 식량안보 강화와 물가급등대책 등 농림수산 관련 8,206억엔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2022년도 제2차 추경안이 11월 8일 각의 결정됨
-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량의 안정공급 등이 과제인 가운데, 보리·콩의 국산화와 비료 국산화, 사료 자급률 제고 등에 중점을 둔 내용

### [ 농림수산관련 주요 보정예산안의 중점사업 ]

(단위 : 억엔)

물가 급등 영향 완화 대책	시설원에 등 연료가격 급등대책	85
	<b>배합사료 가격급등 긴급대책</b>	<b>103</b>
	적정 가격형성의 이해증진 등	25
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구조전환 대책	비료의 국산화·안정공급확보대책	270
	<b>사료자급률 향상 종합 긴급대책</b>	<b>120</b>
	생산자재 사용 저감 대책	40
	쌀가루 이용확대 지원대책	140
	논의 발전환 촉진·발작물 산지형성 촉진사업	550
TPP 관련대책	<b>마켓인 수출추진 강화</b>	<b>76</b>
	수출산지·사업자의 육성·전개	67
	<b>수출선 국가의 규제 등에 대응한 가공시설 등 정비</b>	<b>220</b>
	산지생산기반 파워업 사업	306
	<b>축산클러스터에 의한 생산기반 유지·강화</b>	<b>555</b>
	농림수산업의 생산주체의 확보·육성	54
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농림수산시책의 추진	논 활용 직접지불 교부금	190
	채소가격안정대책사업	81
	<b>우유수급 개선대책</b>	<b>57</b>
방재·감재, 국토 강인화와 재해복구 등 추진	농업수리시설, 물웅덩이 등의 대책	817
	재해복구 등 사업	521

자료 : 일본 농림수산성

### □ 배합사료가격 등 물가 급등 대책

- 물가 급등의 영향 완화 대책으로는 1,127억엔이 포함됨
- 계획적으로 에너지 절약 산지를 대상으로, 농업인과 국가에서 기금을 마련해, 유류 등의 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전금을 교부하는 ‘시설원에 등 연료가격 급등대책’에 85억엔, 옥수수 등 사료원료 가격 상승 등에

따른 배합사료 가격 급등에 대응해 보전금을 교부하는 ‘배합사료 가격 급등 긴급대책’에 103억엔이 포함됨

- 또, 적절한 가격 형성을 향해서 SNS등을 활용한 정보 발신에 의한 국민 이해의 양성이나, 신선 식료품 등의 공급망 개선·강화의 지원 등에 25억엔이 계상되었음

## □ 비료원료 비축 및 보리·대두 국산화 등 식량안보 강화

-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구조전환 대책으로 1,642억엔이 책정됨
- 이 중 주요 비료 원료 비축에 필요한 보관경비 및 시설정비 경비 지원과 가축 배설물 및 하수 슬러지 자원 활용 등 ‘비료 국산화 안정공급 확보 대책’에 270억엔이 포함됨
- 또 보리 콩 등의 국산화 추진을 위해 논의 밭 전환을 지원하는 ‘밭 전환 촉진사업’에 250억엔, 저비용 생산기술 도입 등을 지원하는 ‘밭작물 산지형성 촉진사업’에 300억엔이 포함됨
  - 보리·콩 등의 밭 전환에 10a당 14만엔을 보조하는 것과 더불어 생산이 안정될 때까지 정착 촉진 지원으로서 10a당 10만엔을 5년간(또는 일괄 2만엔) 지원
  - 논·밭 가리지 않고 경작단지화와 영농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국산 밀·콩 공급력 강화 종합대책에도 64억엔이 포함됨
- 게다가 쌀가루를 원료로 한 상품 개발·보급이나 제분 기업의 시설 정비 등 쌀가루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도 140억엔이 계상되었음

## □ 수출 5조엔 실현 전략 등 TPP 관련 대책

- TPP 관련 대책으로서는 2,704억엔이 계상되었음
- 2030년 수출 목표 5조엔 실현을 위한 ‘농림수산물·식품 수출 확대 실행전략’ 실시예 약 430억엔이 포함됨

- 축산물 수출 확대와 사료 증산 등 생산기반 강화 등을 지원하는 축산클러스터 사업에 555억엔이 계상됨
  - 국산 치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 향상이나 브랜드화, 수요 확대 대치를 지원하는 대책에도 53억엔을 계상
  - 신규 취농인 확보 등 농림수산업 영농주체 확보·육성에 54억엔을 배정

□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농림수산 시책의 추진

- 낙농 경영의 안정을 위해 우유 수급 개선으로 이어지는 우유 생산 억제나 유제품 장기 보관 등을 지원하는 대책에 57억엔, 채소가격 안정 대책 사업에 81억엔이 계상되었음

자료 : 일본농업협동조합신문(22.11.9.)

## 일본 ‘텐트 축사’ 인기, 채광성과 적은 건설비용이 장점

- 텐트 창고 등을 다루는 야마구치(山口) 산업(사가현 다쿠시(佐賀県多久市))이 개발한, 지붕이나 벽에 직물 천을 사용하는 ‘텐트 축사’가 주목을 끌고 있음
  - 건설비를 삭감할 수 있는 것 외에 채광성이 좋아 가축의 생육이나 작업성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축산농가의 평가도 높음
  - 이 회사는 ‘축사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’에 힘입어, 기존 우사 외에 돈사 및 계사 개발에도 나서고 있음

[ 빛이 통과하는 소재를 사용한 텐트축사, 밝아서 작업성이 향상이 기대됨 ]





□ 야마구치산업은 산업용 텐트 창고 외에, 신야마구치역 앞 로터리 지붕 등 건축 및 상업용의 다양한 막재(膜材) 구조 건축물을 만들어 왔음

○ 우사(牛舎)는 2016년 이와테현(岩手県) 축산농가의 요청에 따라 개발한 것이 시작점

○ 프로젝트를 시작해 전국의 축산농가에 판매를 했는데, 큐슈(九州)나 칸사이(関西), 토호쿠(東北), 쥬코쿠(中国) 등 전국 각지의 농가로부터 주문이 잇따르면서 시공 실적은 지금까지 40동을 넘었음

□ 텐트 축사의 가장 큰 특징은, 경량으로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

○ 폴리에스테르 직물 등을 이용한 막재는 강도가 있으면서 가벼워 지붕과 벽에 사용하면 철골 기둥을 적게 만들 수 있음

- 지반 개량도 불필요한 경우가 많아 기존 강판을 사용한 축사와 비교해 건설비를 절반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함

[ 텐트축사는 지붕을 1장의 막재로 만들기 때문에 공기 단축도 기대됨 ]





- 기둥이 적기 때문에 내부에 대형 기계를 설치하는 등 레이아웃에 융통성이 있으며, 지붕에 햇빛을 통과시키는 막재를 사용하면 채광성이 뛰어나 가축의 생육이나 작업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음

□ 올해 4월부터 시행된 ‘축사건축특례법’<sup>3)</sup>도 혼풍으로 작용하고 있음

- 축사에는 주택이나 빌딩과 같은 건축기준법이 적용되고 있었지만, 도도부현(都道府県) 지사의 인정을 받으면, 기준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완화된 기준으로 신축이나 증개축을 할 수 있게 됨

□ 야마구치산업은 건축 자재의 급등으로 농가의 저비용 지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며, “앞으로 텐트 축사의 신축·재건축이 증가하지 않을까”(영업부 야마구치 히데키(山口秀樹) 총괄 본부장)라고 기대

- 호기를 활용하고자 우사외에 돈사와 계사 개발에도 착수, 돼지는 소보다 섬세해 축사 내 엄격한 온도 관리가 요구됨
  - 이를 위해 종돈의 생산·판매 등을 담당하는 ‘이와타니·캠보로(도쿄·중앙),와 공동으로 ‘텐트 돈사’를 개발해,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
- 이 텐트 돈사는 단열 시트를 내장하는 것 외에, 이와타니·캠보로의 축사 공조 시스템을 채용해 돈사의 온도 관리를 용이하게 함
  - 계사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 예정, 야마구치 통괄 본부장은 “25년까지 텐트 축사를 100동 건설해, 20억엔 이상의 매출을 전망하고 있다”라고 밝힘

자료 : 일본경제신문(22.11.10.),

3) ‘축사등의 건축 및 이용 특례에 관한 법률’은 21년 5월 19일에 공포되어 2022년 4월 1일에 시행되었음. 본 법률은, 본 법률에 의한 기준의 적용을 희망하는 자가 축사 등의 건축 및 이용에 관한 계획(축사건축이용계획)을 작성하여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을 경우, 계획에 따라 건축되는 축사 등에 대해 건축기준법의 적용을 제외함.